

불기2560(2016)년도 3분기 승려복지회보 총무원장스님 인사말씀

승려복지는 종도의 한결같은 바람이자 종단의 커다란 숙원이었습니다. 승려복지에 대한 종단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는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사설사암을 소유하는 등, 승가의 공동체 정신에 영향을 끼친다는데 많은 스님들이 공감하기도 합니다.

이에 종단은 십 수 년 전부터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며 ‘승보공양실천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지만 재원마련과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하여 시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33대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승려복지가 종단 및 불교발전과 직결되는 핵심 사안임을 인식하고 핵심과제로 선정해 구체적인 시행준비에 들어가 마침내 2011년 4월 승려복지법을 제정하고 승려복지회를 전담기구로 설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제도 정착화를 위해 진력한 결과 2015년부터는 지원규모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종단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내년부터 스님들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거의 모든 스님들이 가입해 혜택을 받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한 스님이 20%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재원을 위해 종단과 교구가 함께 힘을 합쳐 추진해 나가고 있지만 많은 난관이 마주하고 있기도 합니다.

승려복지는 스님들이 자본에 얽매이지 않고 수행과 포교에 진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승가 또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종단도 핵심 사업으로 지속하고, 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해 씩씩이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불자 모두 ‘승보공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발원으로 삼아 미래 한국불교를 밝히는 불사에 두루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부대중이 하나로 뜻을 모아 승려복지를 구현하여, 종단 화합과 안정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에 종교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단단하고 넓은 자양분을 갖추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0(2016)년 7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